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기독교교육진흥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3.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한가윗날 아침 청과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 들녘에 서보면 마음조차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렇게 알곡이 되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땅에 묻는 슬픔과 좌절의 아픔조차 주님은 빛나는 결실로 바꾸어주십니다. 빈 손 들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기쁨의 선물을 안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참 고맙습니다.

주님, 지금 외로운 사람들, 지금 배고픈 사람들, 눈물의 골짜기에 서 길을 잃은 사람들, 지금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운 사람들을 위로해주시시오. 내적인 어둠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보름달처럼 원만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시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호10:12
♠ 교 독 문	64. 감사절(1)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대표기도	한상의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10. 저 밭에 농부 나가
하나님께 올리는 편지 1	고등부 하진솔
성경봉독	출16:14-21
찬 양	성가대
말 씬	오늘 우리가 먹는 만나
하나님께 올리는 편지 2	초등부 최다미

헌신의 찬송	432.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6. 성자의 귀한 몸(4)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너그러운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어둠 속을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사랑의 등불을 밝히며 사십시오.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이가 되십시오.

다함께 : 아멘. 눈물의 골짜기를 기쁨의 샘물이 넘치는 땅으로 바꾸시려는 주님의 계획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아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진리와 생명의 길로만 걷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에베소서 강해(20) / 김기석 목사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기도 : 권미정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박정숙 선생 김재흥 목사	인도자 최숙화 권사

9월	영접위원	조병무	하현철	권혁순	안정숙	정경례	조항미
	헌금위원	김철수	이인웅	김인걸	조병주	김성자	허정윤

축복의 사명



하나님의 피조물로 세상에 나오는 순간 축복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하고 선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신성합니다. 세상 모든 것의 고유한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생명, 아름다움과 교감할 수 있으며,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사명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못하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느냐 못하느냐도 상관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며, 축복의 사명을 갖고 있으며, 선한 말을 하고 선함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다른 이를 축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자신이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미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통해 새로운 생명, 힘, 치유, 용기와 활기를 일으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가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했던 방식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에게 저의 하루 일과를 도와주십사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 제 일과가 당신의 뜻에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길지 않은 지상에서의 삶을 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님을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특권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때면, 콧노래를 부르거나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춤을 추고 싶어집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음악이 되고 노래가 되는 기분마저 듭니다. 리듬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춤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 자리잡고 있던 우주와의 거리감, 혹은 단절감이 사라지고 대신 우주의 리듬을 만드는 심오한 힘과 일체감을 느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낮이 가고 밤이 오고, 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것은 바로 그 리듬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기 이전에, 먼저 우리 내면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만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자신에 대해 편안함을 느껴야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쉬워집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과 모든 인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속한 사회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사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물과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행동 하나가 우리 모두를 다치게 하듯, 평화적인 행동 하나가 온 세상의 평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행동이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동안 우리 자신이 곧 평화가 됩니다.



언젠가 나이지리아에서, 여자와 아이들이 물을 길기 위해 우물가에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물이 돌아가지 않았습다. 그들은 바로 물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스태니슬라우스 케네디 수녀, <<영혼의 정원>> 중에서

네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라

나는 너를 내 손으로 손수 빚어 만든 네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가 만든 것을 사랑한다. 나는 내가 사랑받는 만큼 너를 사랑하며, 그러기에 한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에게서 도망치지 말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내게 돌아오너라.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럴진대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이 가슴에다 꼭 껴안고 입맞추고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주지 않으리라 네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네 하나님이다. —자비와 연민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온유와 배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저버렸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돌아갈 길이 아예 없다는 말일랑 하지 말라.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나는 네가 내 가까이 있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네 모든 생각을 나는 알고 있다. 네 모든 말을 나는 듣고 있다. 네 모든 행실을 나는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모상으로 빚어져 나의 지극히 간절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네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네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라. 너 자신을 단죄하지 말라. 너 자신을 배척하지 말라. 네 마음의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한 구석구석까지 내 사랑이 비쳐들어 너의 아름다움을 들추어내게 하라. 내 자비의 빛이 비치면 네가 이제껏 망각하고 있던 네 아름다움이 또 다시 네 눈앞에 떠오르리라. 어서 내게 오너라. 내가 네 눈물을 씻어주고 네 귀에다 입을 바싹대고 속삭여주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헨리 뉴엔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성가대장	: 한상의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남 이한림 김명희 박창운 허정윤 박규석 박경선 이인웅
박영숙 이유선 방극숙 안정숙 박경원 이호원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표명화 김흥기 전영규 김경수 김성자 박찬정 이갑재
송의섭 유혜경 배부례

감사헌금:

박옥식 고숙이 이정은 황경순 김지윤 장준호 권채영 김종훈 안경숙

생일감사헌금: 김철수 허재영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노 용 래	김 정 섭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윤 수	김 미 순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춘 희	이 소 순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원	곽 혜 자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문 금 석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백 묘 현	문 복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권 미 정	김 재 광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장 혜 숙	이 봉 옥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구 성 실	최 종 원
가버나움	구 명 자	안 흥 숙	안 흥 숙	이 영 옥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김 희 우	백 혜 숙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유 경 순	김 수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유 혜 경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향 미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기독교교육진흥주일** : 오늘 예배는 교회학교 학생들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3. **아름다운 원로모임** : 21일(수)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4. **세계기도의 날** : 21일(수)은 '모두를 위한 평화 공동체 세우기'라는 주제로 전 세계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수요집회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 **동호회** :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지내십시오. 동호회 모임은 다음 주일(25일) 오후로 변경합니다.
6. **신앙실천** : 영성의 문은 비움을 통해 열립니다. 욕망을 절제하면 감사는 커집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구도헌금을 준비하십시오.

* 헌화 : 최철수 집사 광권희 집사 (부모님 기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